

精神現象에 대한 認知論的 解釋

— 命題 態度的 賦與를 中心으로 —

石 峯 來

● 목

차 ●

* 본 론

I. 認知論의 주장들

A. 通俗 心理學(folk psychology)

1. 通俗 心理學的 說明 方式의 特徵
2. 認知論과의 關係
3. 通俗 心理學의 문제점들

B. 心的 表象(mental representation)

1. 心的인 記號로서의 表象
2. 經驗論的 表象 理論
3. 心的 表象을 상징하는 理由
4. 마음의 表象理論에 關한 批判들

C. 行爲에 關한 認知論的 說明

1. 包括 法則 模型과 心理學
2. 認知論的 說明 方式
3. 認知論的 說明 方式과 心理學
4. 認知論的 說明 方式에 對한 反論

D. 컴퓨터

1. 認知論과 컴퓨터
2. 技術과 理解의 問題

* 맺는말

* 참고문헌

* 본 론

I. 인지론의 주장들

인지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경험적인 현상 그것의 바탕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으나, 그 현상을 일으키게끔 한 것들이 있는데, 복잡하고 규칙을 따라 일정하게 일어나는 현상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구조지워진 바탕이 그 아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認知的 행동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들이다. 따라서 인지론에서는 인간의 認知的 行動들을 構造지워진 內的 體系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¹⁾

인지론자들은 인간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인간의 행동이란 주어진 환경의 상태나 자극을 내적으로 표상하고 그렇게 형성된 표상을 길잡이 삼아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다.²⁾

註 1) Searle, J. (1984 a) p. 64. 그리고 Haugeland, J. (1981) p. 260.

“... intelligent behavior is to be explained by appeal to internal “cognitive processes” ...”

2) Hofstadter, D. (1981) p. 82 참조.

석봉래

이러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는 인간 행위에 관련된 통상적인 설명 방식과 흡사한 점이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다.

X는 A를 한다.

왜?

그는 P를 믿고 Q를 바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P와 Q는 어떤 내용을 가진 내적인 표상이 되며 동시에 A라는 행동을 야기하게끔 한 내적인 과정이 된다. 즉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관한 표상이 내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이나 바램 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작업은 通俗 心理學(folk psychology)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인지론은 통속 심리학의 보다 세련되고 엄밀화된 형태이다.³⁾ 인지론은 표상과 표상이 어떤 규칙에 따라 처리되는 방식의 설명을 통해 인간 행위의 규칙성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지론은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컴퓨터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도입해 설명한다. 인지론자들에 의하면 마음은 일종의 컴퓨터이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의 지적인 활동은 내적인 표상의 처리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으로 하여금 표상에 기초하여 행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표상들이 認知的 記號로서 우리에게 物理的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런 기호에 가해진 操作的 因果的 結果이기 때문이다.⁴⁾ 이것은 바로 컴퓨터가 하는 일인데 마음의 작용이란 이러한 컴퓨터의 작용인 셈이다. 이런 컴퓨터의 모델을 통해, 우리 마음이 가진 표상(특정한 믿음이나 특정할 바램의 내용)이 어떻게 외적인 행동을 야기하는지가 설명된다.

우리의 지적인 행위들에 대한 인지론적인 설명은 따라서 우리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즉 내적인 표상처리 능력에 대한) 설명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전통적인 법칙 연역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즉 인지론에서는 어떤 현상(인간의 知的인 行爲)을 일반 법칙의 한 예로서 설명하지 않고 어떤 능력을 갖춘 구조지워진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 설명한다.⁵⁾ 아울러 인지론적인 설명에서는 고유한 記述 어휘가 사용된다. 우리의 지적인 행위는 그런 어휘로 기술되었을 때 規則性과 一般化 可能性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⁶⁾ 결국 이러한 인지론적 입장에서의 심리학은 고유한 성격을 갖는 독립적인 분과 과학이 된다.

認知論的 입장을 특징지워줄 수 있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각각 通俗 心理學, 心的 表象, 認知論的 說明 그리고 컴퓨터이다. 그 각각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註 3) Stich, S. (1983) p. 129 참조.

4) Pylyshyn, Z. (1985) p. xiii.

5) Cummins, R. (1983) pp. 14-22.

6) Pylyshyn, Z. (1985) pp. 1-21.

A. 通俗 心理學(folk psychology)

통속 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동을 그 행위자에게 믿음이나 바램을 부여함으로써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믿음이나 바램 등과 같은 일상적인 심리 상태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⁷⁾ 통속 심리학적 설명 방식은 상식적인 행위 설명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X는 A를 한다.

왜?

X는 P를 믿고 Q를 바라고 있으니

1. 통속 심리학적 설명 방식의 특징⁸⁾

통속 심리학적 설명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로, 그것(심리 상태)의 나타남과 상호 작용이 우리의 행동을 야기하게하는 심리 상태가 있다. 둘째로, 그런 심리 상태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행위의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통속 심리학적 설명 방식의 특징은 행위자의 믿음이나 바램을 통해 그의 행위를 설명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행위가 일어난 원인은 바로 그 행위자의 특정한 믿음이나 바램이 된다. 그리고 통속 심리학적 설명은 反事實的인 상황에서도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만약 그 행위자가 그 특정한 믿음이나 바램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그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이다.

통속 심리학에서 행위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심리 상태는 믿음이나 바램과 같은 명제태도들이다. 이런 명제태도들은 통속 심리학적 설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믿음이나 바램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믿음이나 바램은 행위를 야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나 바램은 일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바램도 무엇에 대한 바램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은 그의 믿음이나 바램 때문이고, 그 믿음과 바램은 어떤 내용을 갖는 것인데, 결국 행위란 행위자의 믿음이나 바램의 내용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믿음과 바램은 여러가지 다른 명제태도들과 관련을 맺고 그것들을 야기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 떨어진 고향에 관한 나의 여러가지 생각(믿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나의 바램을 야기할 수 있고 또 그 밖에 고향과 관련된 혹은 색다른 여러 명제태도를 야기할 수 있다. 요약하면, 통속 심리학적 설명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들(믿음이나 바램 같은 것들)은 내용을 갖는다는 성격, 행위를 야기한다는 성격(행위의 원인이 된다는 성격), 그리고 다른 명제태도들을 야기한다는 성격을 갖는다.

2. 인지론과의 관계

인지론은 기본적으로 통속 심리학적 설명 방식의 틀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註7) Fodor, J. (1985) pp. 77-81.

8) 주로 Fodor, J. (1985) pp. 77-81 참조.

있다. 인지론이나 통속 심리학이나 모두 행위의 규칙성과 그것에 관한 일반화를 얻기 위해서 내적인 믿음이나 바람의 내용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⁹⁾

또한 통속 심리학은 인지론이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에 대한 표상 이론(the 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욕구나 믿음은(그것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명제적 내용을 갖는 것으로서 취급되는데 바로 이 내용은 마음의 표상 이론(the 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 以下 RTM이라고 略함)에서는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인 것이다. RTM은 명제태도를 표상에 대한 관계로써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우리의 믿음 상태나 욕구 상태는 우리가 어떤 심적 표상에 대한 특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설악산은 아름답다고 하는 믿음(P)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러한 나의 믿음 상태는 설악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내용 즉 심적 표상에 대해 내가 일정한 관계(믿음이라는 상태를 형성시키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설악산이 아름답게 되길 바라고 있다면, 그런 그의 바람의 상태는 위의 경우와 같은 표상에 대해 다른 관계를(바람이라는 상태를 형성시키는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명제태도에 관한 설명은 통속 심리학의 그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 우리의 믿음이나 바람의 상태라는 것은, 통속 심리학에 의하면, 어떠한 내용(믿음이나 바람의 대상으로서)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행위를 야기시키는데 이 점을 인지론에서는 표상과 그것의 처리과정에 의해 나타난 결과(행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지론은 통속 심리학의 경험적인 일반화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 엄밀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그것은 통속 심리학의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이는 입장은 아니다. 인지론이 택하고 있는 전략이란 경험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관한 이론을 통속 심리학적인 설명의 틀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통속 심리학적인 설명을 경험적인 이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COMPUTER 과학이 한 몫을 한다. 우리의 욕구나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행위를 야기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지론이 통속 심리학과는 달리 엄밀한 경험적인 설명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컴퓨터의 작동에 관한 이론을 참조한 결과인 것이다.

통속 심리학적인 설명의 틀을 받아들인다는 점 그리고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 상태(여기서는 명제태도)들의 內容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지론은 기본적으로 통속 심리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통속 심리학의 문제점들

일반적으로 통속 심리학은 일상적인 행위의 규칙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어서 그 예측에 있어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우리의 일상적인 對人관계가 그러한 통속 심리학적인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속 심리학은 그 안에 과학적인 이론이 포함해서는 안될 것들을 가지고 있다.

註9) Pylyshyn, Z. (1985) pp.14-22.

10) Stich, S. (1983) p.129.

첫째로 통속 심리학은 존재론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을 상정하고 있다. 즉 그것은 마음이라는 미스터리한 대상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음은, 통속 심리학에 의하면, 육체와는 구별되지만 그것에 상호 작용하는, 그러나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둘째로, 통속 심리학은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에 있어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통속 심리학은 신경 생리학 등의 이론과 전혀 무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과적인 사건들을 육체에 야기시키는지에 관한 (경험적으로) 만족스런 설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¹¹⁾

세째로, 통속 심리학은 內省的인 方法을 채택하고 있어서 일반성을 상실하고 있다.

네째로, 기본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장치나 객관적인 기준이 통속 심리학에서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개념의 적용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즉 어떤 경우에 어떤 믿음을 부여해야 되고 어떤 일반화를 적용시켜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¹²⁾

B. 心的 表象(mental representation)

인지론에서는, 인간의 행위(특별히 知的인 行爲)의 규칙성과 그것에 대한 일반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적인 믿음이나 욕구의 내용을 참고하고 끌어들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구실을 하는 것이 심적 표상이다.

1. 心的인 記號(mental symbol)로서의 表象

상식적으로 우리의 명제태도들, 즉 믿음, 욕구, 희망 등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그 대상으로서 어떤 내용을 (명제적 내용을) 갖는다. 우리의 심리 상태의 특징을 바로 그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심리 상태나 명제태도는 모두 무엇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믿음이나 바램에는 반드시 어떤 대상 (명제적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많은 철학자들은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고 불렀다.¹³⁾ 우리는 내용을 가진 여러 심리 상태들의 복합에 의해 사고하고 행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 상태나 명제태도들의 특징을 인지론에서는 心的인 記號를 도입함으로써 설명한다. 기호는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의미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호의 역할을 마음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心的 表象인 것이다.

기호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로, 기호가 가지고 있는 형태나 모양에 관계되는 구문론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로, 기호가 담고 있는 내용

註 11) Fodor, J. (1985) pp.80-1.

12) Churchland, P. (1984) pp.88-9.

13) "Every mental phenomenon is characterized by what the Scholastics of the Middle Ages called the intentional (or mental) inexistence of an object, and what we might call, though not wholly unambiguously, reference to a content, direction toward an object (which is not to be understood here to be a thing), or immanent objectivity". (*Psychology from an empirical standpoint* (Brentano 著) Antos C. Rancuredo, D.B. Terrell and Linda L. McAlister, 번역 New York, Humanities Press, 1973, pp.78-9)

에 관계되는 의미론적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리의 명제 태도나 심리 상태가 갖는 지향성, 즉 내용을 갖는 성격은 심적인 기호의 의미론적 속성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나 바램의 상태는 심적인 기호들에 대한 우리의 특정한 관계 맺음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인지론자들이 심적인 표상을 하나의 기호로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 상태들의 지향성이 기호의 의미론적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적인 표상을 기호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 밖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들이 표상에 의해 야기된다는 사실을, 표상을 심적인 기호로 처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바램의 내용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점을 (표상에 의해서 행위가 야기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행위를 야기하게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믿고 있거나 바라고 있는 것들은 實在하지 않는 것들이거나 상상의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점은 심적 표상을 기호로 생각함으로써 해결된다. 기호는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구문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문론적인 성격이 컴퓨터적인 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어떠한 인과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물론 표상의 내용적인 측면은 보존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심적인 표상을 기호로 생각할 이유가 분명해진다. 우리의 심리 상태들은 내용을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행위를 야기한다. 심적인 표상은 하나의 기호로서 내용(의미)을 가지고 그것의 구문론적 속성을 통해 행위를 야기한다. 우리의 심리 상태나 과정을 기호들의 처리과정으로 생각하는 인지론적인 입장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

결국 통속 심리학적인 설명(믿음과 바램의 내용이 행위를 야기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은 心的인 記號로서의 內的 表象을 설정하는 것을 통해 인지론적인 전환을 한다. 그런데 이 전환은 心的 記號의 컴퓨터적인 처리라는 설명 방식의 도입으로 완성된다.

2. 經驗論的 表象理論

내적인 표상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 방식으로 연결시키고 처리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는 입장의 기원은 영국 경험론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Fodor에 의하면 영국 경험론자들(특히 흄)은 다음과 같은 방식의 마음에 대한 표상이론을 가지고 있다.¹⁴⁾

- i) idea (심적 표상)라는 것이 존재한다.
- ii)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idea를 가지고 향유하는 것이다.
- iii) 심리 과정은 idea들의 인과적 연합의 과정이다.
- iv) idea는 그림과 같은 것이다.
- v) idea는 그것과 닮은 것에 의해 의미론적 성격을 갖는다. (유사성에 의해 의미론적 성격을 얻는다.)

이러한 경험론자들의 주장이 모두 현대의 인지론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현대의 표상 이론을 지지하는 인지론자들의 주장은 과거의 경험론자

註 14) Fodor, J. (1981a) p.131.

들의 그것과 구분된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적 표상은 그것의 의미를 그것이 비슷하게 닮고 있는 것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어떤 나무에 대한 표상은 그 표상이 실제 세계의 그 나무와 닮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도 있고, 나아가 결코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표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지론자들은 표상은 그것이 갖는 기능적 역할에 의해 의미론적 내용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니다. 어떤 한 표상이 심리 상태들의 전 체계에 대해 갖는 기능적 역할은 그 표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Fodor, J. (1985) p.96 참조. 이 문제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문제이다.)

둘째로, 심리 과정을 관념의 연합으로 보는 경험론적 입장에 대해 현대의 인지론자들은 반대한다. 觀念의 聯合의 法則이란, 관념들이 類似나 時空的인 隣接으로 인해 흠어지고 모인다는 주장인데, 경험론자들은 이러한 관념의 연합에 의해서 일련의 믿음이나 욕구의 상태가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思考나 행위를 야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연적인 심리 상태들의 연쇄와 엄밀한 論理法則을 따르는 思考의 展開 過程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의 思考는 논리 법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聯想(우연적인 심리 상태들의 연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서면,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단순한 관념들의 연결에 의해 나타나는 연상 이상의 것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현대의 인지론자들은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 관한 설명을 원용함으로써 설명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D. computer 부분에서)

현대의 인지론자들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한다.

- 심리 상태는 어떤 내적, 표상적 대상에 대한 관계이다; 어떤 체계 O, 어떤 명제 P, 어떤 관계 R이 있고, 어떤 심적 표상 MP가 어떤 명제 내용 p를 가지고 있을 때, O가 p를 믿는다는 것은 O가 MP에 대해서 R인 관계를 맺는 오직 그 경우에만 한한다.¹⁵⁾
- 그런 표상적 대상은 내용을 갖는다.
- 그런 표상적인 대상은 심적 기호(mental symbol)로서, 컴퓨터적인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점은 경험론적인 표상 이론에서 현대의 인지론적인 표상 이론을 구분짓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현대의 인지론적인 표상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심적 표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험론적 표상 이론가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으나, 심적 표상의 처리과정 즉 심리과정을 컴퓨터적인 과정으로 본 점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선두 주자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경험론적인 표상 이론을 지지하는 이론가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현대의 인지론자들은 마음에 대한 컴퓨터적인 이론(the computational theory of mind 또는 줄여서 CTM)

註 15) Fodor, J. (1985) p.88.

을 지지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3. 心的 表象을 상징하는 이유

이러한 심적 표상이 심리 상태나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나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의 심리 상태가 갖는 지향성을 드러내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떤 의미를 갖는 표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심리 상태들은 상식적으로 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명제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제 태도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Brentano (1838-1971)는 심적 현상의 특징으로 이 점을 꼽았다. 심리 상태가 갖는 이런 속성을 그는 지향성(intentionality)이라고 불렀는데, 이 지향성은 그에게 있어, 심적 현상과 物的 현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식 작용은 표상이건 판단이건 욕망이건 반드시 어떤 대상에 관한 작용이며, 이때 그것은 그 대상을 지향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Brentano는 말한다. 17) 이러한 심리 상태에 대한 중요한 속성을 바르게 살려내는 방법의 일환으로써, 심적 표상이 상징되는 것이다. 즉 심적 표상은 의식 작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인지적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표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註 16) CTM과 RTM은 다음의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RTM: 심리 상태나 과정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표상의 내용과 그것과 표상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따라 구분된다. 즉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 a) X believes that P
- " Q
- " R
- b) X " that P
- X hopes that P
- X fears that P

여기서는 표상의 내용이 한 심리 상태와 다른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

CTM: 내용만 가지고 심리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도 역시 구분되어야 한다. 컴퓨터적인 기호의 처리 방식이란 기호의 형식적인 속성에 가해지는 조작이므로, 이런 주장이 나와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Fodor는 현대의 認知論이 方法論的 唯我論을 탐구의 전략으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심리 상태나 과정이 컴퓨터적인 계산 과정이란 것은 의미론적 요소(의미, 진리, 지시)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도식으로 심리 상태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심리 상태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외부 세계의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심리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론적인 내용을 도입하는 발상인데, 이것은 컴퓨터적인 처리 방식과는 무관하다. 컴퓨터적인 처리 방식에는 의미론적인 차이가 형식적인(formal) 차이를 야기하는 한 유효한 것이다. CTM에서는 표상의 내용이 형식적인(formal)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것이다. Fodor(1980) 참조.

17) Grossmann, R. (1984) pp.29-36. 그리고 한 전숙 (1984) pp. 53-88. "Edmund Husserl 의 현상학" 참조.

1) 행위의 설명에 있어서

우리가 인지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18)

- * 인지적 행동을 산출하는 체계의 물리적 속성에 의존해서 그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
- ** 그 체계의 기능론적 구조에 의존해서(어떤 기능을 가진 부분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전체적인 체계의 행동이 야기되었나를 보여줌으로써) 설명하는 방식
- *** 문제가 되는 체계가 어떤 표상을 가지고 그것을 규칙에 따라 처리하므로써, 어떤 행위가 야기 되었다고 설명하는 방식.

우리의 인지적 행위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번째 설명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 그 이유는

- i) 한 종류의 행위는 여러가지 다른 물리적인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 ii) 우리의 인지적인 행위는, 어느 한도 내에서, 상황의 변화 혹은 자극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 정확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는 그런 조건들을 넘어서 있는 나름의 규칙성이 있다. 19)
- iii) 기능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행위들을 구분(individuate)해 나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의 인지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기능적 상태들로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명제 P와 그것이 이중 부정인 명제 $\sim(\sim P)$ 를 생각해 보자. 어떤 명제 P와 $\sim(\sim P)$ 는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의 명제이다. 그런데 두 개의 표현이 각각 포함된 논리적 추론에 있어서, P가 포함된 추론은 $\sim(\sim P)$ 가 포함된 추리보다 실수가 적고 처리 시간도 짧았다. (여기서 비교되는 두 논리적 추론은 P의 위치에 $\sim(\sim P)$ 가 혹은 $\sim(\sim P)$ 의 자리에 P가 대신 들어가 있다는 점을 빼고는 꼭 같은 추론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P가 포함된 추론과 $\sim(\sim P)$ 가 포함된 추론은 기능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내용적으로 동일한 추론을 수행한 것이다. 20)
- iv) 우리의 인지적 행위에 대한 *와 **의 설명 방식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행동이 物理的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 *나 **처럼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 (즉 senseless 하다.) *와 **와 같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상한 꼴이 되고 만다.

너 여기 왜 왔니?

나의 두뇌의 시상 하부의 상태 때문에.

2) 행위의 규칙성과 일반화 가능성 21)

인지적인 행위에 관한 규칙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얻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적

註 18) Pylyshyn, Z. (1985) pp.1-12 그리고 Dennett, D. (1971) pp.221-7.

19) Pylyshyn, Z. (1985) pp.12-21.

20) Pylyshyn, Z. (1985) pp.28-32.

21) Pylyshyn, Z. (1987) "What's in a mind?" 이 논문에서 Pylyshyn은 행위의 규칙성과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인 표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인지적 행위의 규칙성이 표상을 포함하는 단계의 용어만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며, 다음으로 하나의 행위는 물리적인 용어나 기능적인 용어로 記述되는 상태에 대해 多數 實現(multiple realization) 관계(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다른 물리적 기능적 상태로 실현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떤 행위를 물리적 성질에 의존하여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우리의 행위는 여러가지 다른 물리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는 물리적, 생리 화학적 조건의 변화에 畧적으로 의존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다른 조건에 의해 규칙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규칙성은 표상을 상징함으로써 얻어진다.
- * 어느 한도 내에서의 규칙적 행동은 행위자에게 관련된 지식을 제공(주입)함으로써(즉 표상을 바꾸어 줌으로써),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떤 건물에 연기가 나고 싸이렌 소리가 들린다고 하자. 이때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A)는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즉 P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만약 A에게 그 건물에 불이 난 것이 아니고 소방 훈련을 하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내고 싸이렌을 사람들이 울렸다고 알려 준다면, (즉 그의 믿음 P를 다른 믿음으로 바꾼다면) 그의 행동은 前과는 달라질 것이다. 행위의 규칙성은 물리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를 바꿈으로써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상태(즉 표상적 상태)를 바꾸어 줌으로써 달라진다. (건물의 크기, 연기의 색, 싸이렌 소리의 차이 등은 A의 행동을 크게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행위의 규칙성은 표상의 내용에 의존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행위의 규칙성은 표상을 상징함으로써만 잘 드러나는 것이다.²²⁾
- * 한 종류의 용어로서 기술될 수 있는 일반화가 다른 종류의 용어로는 기술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물리적 용어, 기능적 용어로는 우리의 인지적 행위의 규칙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용어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방식으로 현상을 個別化(individuate) 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형태나 속성에 대해 다른 기준의 종류 구분(type identity)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는 심적 표상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계의 기술 어휘로서 기술되었을 때 규칙성이 드러나는 것이다.²³⁾
- * 우리의 인지적 행위에는 물리적 단계나 기능적 단계를 넘어서 있는 제약이 있다. 즉 표상을 설정해서 행위를 설명하는 단계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이것은 한 단계의 기술과 다른 단계의 기술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물리학의 법칙과 생물학의 법칙을 예로 들어 보자. 물리학의 법칙이 허용하는 원소들

註 22) 우리 행위의 이러한 규칙성을 인지적으로 투과적인(cognitively penetrable) 성격이라고 Pylyshyn은 말한다. Pylyshyn, Z. (1987) p. 105.

23) Pylyshyn은 현상을 기술 내의 사건들로서(Phenomena as "Events under Descriptions") 취급한다. Pylyshyn, Z. (1987) pp. 16-21.

의 결합은 실지로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존재 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생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리학이 허용하는 만큼의 생물체가 모두 존재하지는 않는다.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왜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즉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허용되는 존재가 왜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가? 그것은 물리학적인 법칙의 단계보다 上位에 있는 어떤 규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즉 생물학의 법칙이 그것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물리학과 생물학은 다른 단계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런 관계가 표상적 단계(표상과 그것의 내용을 나타내는 어휘로 꾸며진 법칙의 단계)와 기능적 단계, 물리적 단계 사이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인지적 행위를 규제하는 원칙들은 표상적 단계에서만 파악되고 이해될 수 있다.

세째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들은 심적 표상을 통해서 훌륭하게 설명된다.²⁵⁾

i) 思考의 創造性

우리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자꾸 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스런 방법은, 새로운 생각들은 보다 기본적인 下位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으로 생겨났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생각을 보다 단순한 하위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에 있어서의 하위 요소는 무엇인가?

생각에 있어서의 하위 요소는 보다 기본적인 생각은 아니다. believing (P & Q)는 believing (P) & believing (Q)라고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believing (P)나 believing (Q)를 갖지 않고서도 [believing (P) or believing (Q)]를 가질 수 있다. 즉 생각(P) 또는 생각(Q)라는 생각은 생각(P)와 생각(Q)를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하나의 생각(명제태도)은 보다 기본적인 것에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요소는 보다 기본적인 생각(기본적인 명제태도)은 아님이 드러난다.

이 경우 해결책은 心的인 記號를 상정함으로써 얻어진다. 명제태도들을 일종의 기호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즉 기호 'P' 그리고 기호 'Q'를 쓰지 않고서는 'P ∨ Q'라는 식을 나타낼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도(생각을 일종의 기호적인 것으로 보는 한) 보다 하위의 생각들의 결합으로 밖에는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된다.

여기서 어떤 종류의 기호로 우리 생각(명제 태도)들을 지적할 것인가? 그것은 물론 心的 表象이다.

ii) 심리 과정(mental process)

우리의 심리 과정은(두뇌 내부의) 인과적인 사건의 연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심리 과정은 추론적 규칙을 따르는, 즉, 사고를 형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문제는

註 24) Pylyshyn, z.(1987), pp.112-2.

25) Fodor, J.(1985) pp.89-94.

이렇다. 의미론적이며 내용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의 사고 과정이 인과적인 사건의 연쇄인 심리 과정과 평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적인 사고 과정과 인과적인 심리 과정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는 컴퓨터의 작동을 참조함으로써 설명된다. (물론 이 경우 컴퓨터의 작동이란 기호의 형식적인 조작을 말하므로 우리 마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음이 작동하기 위해서 심적 기호가 꼭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는 기호의 형식적인 조작을 통하여, 의미있는 추론을 진행시킨다. 우선 기호는 意味論的 屬性과 構文論的인 屬性을 갖는다. 기호의 구문론적인 속성이란 간단히 말하면 기호의 모양을 말하는 데, 이 모양은 그 기호의 인과적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기호의 인과적 역할은 기호의 구문론적 속성과 연결 가능한 것이 된다. 그런데 형식 논리에 의하면 기호들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는 그것의 구문론적 관계로 재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기호의 구문론적 성질에만 착안해서 기호들을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계를 고안할 수 있다. 이 기계는 결론적으로 그 기호의 의미론적 관계에도 변형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떤 체계적인 의미 연결의 변화가 생기고 추론이 진행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기계가 컴퓨터이다. 이 경우 우리는 기호의 구문론적 속성을 통해 추론적 사고와 인과적 심리 과정을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심적 과정에 대한 가장 합당한 이론은 마음을 위와 같은 구문론적 속성의 변환 장치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구문론적 속성은 기호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적 과정에 대한 이런 식의 설명이 타당하다면, 어떠한 心的 記號(mental symbol)가 상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마음의 표상 이론에 관한 비판들

위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심적 표상을 설정하는 인지론적 입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반론이 있다.

첫째로, 우리의 심리 상태가 항상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즉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內的인 믿음의 대상(즉 表象)을 상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향성에 관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통속 심리학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통속 심리학은 우리의 內省에 의존하여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個人的인 사실일뿐 일반성이 없고 부적절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언어 관습이 명제태도 형식의 문장에 늘 어떤 명제적 내용을 부여하고 있어서, 항상 어떤 내용이 명제태도에 관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언어적 습관일 뿐이다. 명제태도를 어떤 관계(어떤 체계가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해 갖는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명제태도를 어떤 체계(system 또는 organism)의 單元的(monadic) 기능상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명제내용은 각각의 심리 상태가 심리 상태들의 전 체계 내에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26)

註 26) Fodor, J. (1985) pp. 84-7. Fodor 에 의하면 Loar, Burge, 그리고 Stalnaker 가 이 계열에 드는 사람들이 된다.

둘째로, 심적 표상을 상정하는 것은 과학적 설명에 있어 좋지 않은(의심스런) 대상을 상정하는 것이다.

우선, 굳이 부담스런 존재론적 언급(ontological commitment)을 해가면서 심적 표상을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심적 표상이란 것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수도 없는 신비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매우 낮은 人工的인 理論 構成物의 냄새가 나기도 한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까?

다음으로 심적 표상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인간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는 대표적인 이론가로 Steven Stich 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심적 표상을 상정함으로써 얻어지는(표상을 어떤 체계에 부여함으로써 그 체계의 행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이론적인 이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²⁷⁾

- * 어떤 표상을 즉 어떤 믿음의 내용을 어떤 체계에 부여하는 일은 애매하고 맥락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그것이 적용될 상황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만약(표상이 포함된) 이런 술어들로 인지론이 구성된다면, 그 이론의 일반화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게 된다.
- * P(명제내용)라는 것을 믿는다, 혹은 P라고 생각한다는 같은 상태는 마치 ‘아브라함 링컨과 닮았다’는 경우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점에 의존해서 그 사실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브라함 링컨과 닮았다’는 경우처럼 「P를 믿는다」라는 것은 관찰자 상대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인지과학도 그것이 표상을 상정하는 한 이러한 성격을(통속 심리학적 상황에서부터) 물려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관찰자에 따라 한 체계에 믿음의 내용을 다르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즉 다른 표상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 * 내용에 따른(명제내용 즉 표상에 따른) 믿음의 구분은 기능적인 기준에 의한 믿음의 구분보다 세밀한 구분의 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구분이 믿음과 문장의 의미론적인 속성에 관계될 때에는 중요한 구분이 된다. 그러나 행위의 설명과 예측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구분인가? 그런 구분은 행위의 설명에 있어서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主犯이다. 인지론은 그런 요소를 끊어내고 보다 엄밀한 요소만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와 믿음 체계가 다른 어떤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 경우를 살펴 보자. 그런 사람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표상 이론이 별 도움이 못된다. 우선 믿음의 내용을 부여하기 힘들고 다음으로 일반화를 얻기 힘들다.
- * 인지 과학에서 표상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비싼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인지 발달 심리학, 인지 임상 심리학, 그리고 인지 비교 심리

註 27) Stich, S. (1983) pp.127-45.

학을 버려야 한다.

세째로, 심적 표상을 상징하는 것은 道具的인 意味를 가질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Daniel Dennett 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²⁸⁾ 심적 표상을 설정하고, 그래서 어떤 체계에 일정한 믿음(믿음의 내용 즉 표상)을 부여하고 그 체계의 행태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의 행태를 예측하는 데는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도구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때 표상은 어떤 종류의 행위예측을 위해 실용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여질 뿐이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믿음의 부여는 합리성(rationality)를 전제하는데 이 합理性은 일종의 理想化(idealization)로서 事實性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적 표상이란, 행위의 규칙성과 예측을 얻기위해 채택된 도구이며, 그것은 탐구에 있어서의 發見的 道具의 意味(heuristic meaning) 이상을 갖지 못한다.

C. 行爲에 관한 認知的 說明

과학이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설명이란 이런 의미에서 과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만하다. 설명이란 상식적으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답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혹은 문제가 되는 현상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인 사실을 지적해야 할 뿐 아니라, 물음에 합당한 내용의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종종 참이긴 하지만 의미없는 대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미없는 대답들이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답을 미리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려서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²⁹⁾

훌륭한 설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그 밖에도 또 있다.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의 규칙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설명이 좋은 설명이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즉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대한 만족스런 과학적인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³⁰⁾

- i)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참인 사실에 의존할 것
- ii) 주어진 문제, 주어진 현상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말이 되는(make sense)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iii) 주어진 현상의 규칙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살려낼 수 있을 것.
- iv) 反事實的인(counterfactual) 상황에서도 효력을 잃지 않을 것.

이러한 조건은, 그러나, 상당히 애매한 부분을(무엇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말이 되는 답인지 정확하게 결정할 기준이 없다)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註 28) Dennett, D. (1971) "Intentional System" 참조.

29) Putnam, H. (1978) pp. 41-3. 그리고 Nagel, E. (1961) pp. 26-8.

30) Putnam, H. (1978) Lecture III 그리고 Nagel, E. (1961) 2 장과 3 장 참조. 여기 나타나는 조건들은, 그러나, 인지론적인 설명 방식을 고려해서 선택된 것임. 특히 조건 iv)는 행위의 認知的 透過性(cognitive penetrability)과 관련이 있다.

는 다만 올바른 사실 혹은 참인 사실(그것이 무엇이든)의 제시만으로는 어떤 현상에 대한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자.

다음과 같은 잘못된 설명의 예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해줄 것이다.

* 부루투스는 왜 시저를 암살했는가?

그의 신경(P_1, P_2, \dots, P_k)과 근육(M_1, M_2, \dots, M_n)들의 움직임(K_1, K_2, \dots, K_n) 때문에. (조건 ii)를 만족하지 못함)

* X는 A를 한다.

왜냐하면 X의 두뇌에 (E_1, E_2, \dots, E_n)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X의 두뇌에(E_1, E_2, \dots, E_n)이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X는 A를 할 것이다.

(조건 iii)을 만족하지 못함)

설명에 관련된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행위에 관한 인지론적인 설명방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포괄 법칙 모형(covering law model)과 심리학

정통적인 과학관에 의하면, 자연 현상 일반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정당한 설명 방식은 포괄 법칙 모형에 의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포괄 법칙 모형이란 설명되어야 하는 현상을, 일반 법칙(물리화적인)의 예로서 포섭함으로써 설명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설명 방식의 대표적인 경우는 法則 演繹的 설명에서 찾아질 수 있다. 법칙 연역적(deductive-nomological) 설명에서는, 설명되어야 하는 현상 즉 被說明項은 일반 법칙과 초기 조건(경험적으로 확인가능한 조건)에서 논리적으로 연역되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법칙 연역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상은 설명된다.

모든 과학적 설명은 모두 포괄 법칙 모형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강력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方法論의 一元論의 입장이라 하는데, 과학이기를 원하는 모든 학문은 모두 이러한 입장에 따라야 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은 상당한 비판을 받게된다. 그러한 비판의 골자는 포괄 법칙 설명모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는 점과 자연 과학에 있어서도 그런 설명 방식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³²⁾

심리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심리학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다.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괄법칙 모형에 의존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인가?

註 31) Hempel, C.G. (1962) pp. 56-61. 그리고 Haugeland, J. (1978) pp. 244-6.

32) Nagel, E. (1961) p. 27. 여기서 Nagel은 여러가지 설명방식이 여러가지 “왜”라는 물음에 대해서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

“심리학적 설명의 본질(The Natur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이라는 책에서 Cummins 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33)

“이 연구의 주된 골자는 심리학적 현상들은 전형적으로, 그것들을 인과적 법칙들 아래로 포섭시킴으로써 설명되지 않고, 분석(analysis)으로 설명되는 능력들의 발휘로서 취급됨으로써 설명되는 것이다.” (p.1)

“내 주제는 그러나, 심리학적 설명이다. 이 장은 대부분의 심리학적 이론들이 인과 포섭적으로 해석되었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분석으로 해석되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처럼 나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분석적 전략의 이해는 심리학적 설명의 이해에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은 분석은 심리학 이외의 생명 과학에 있어서도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중요하고도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설명 전략이란 사실을 깨닫는데 있다. …… 심리학적 설명을 포섭 이론적 틀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것은 그 설명을 사소하게 혹은 무의미하도록 여겨지게 하는 댓가를 치른 연후에나, 다른 나머지 과학과 연계성 있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만다.” (p.27)

포괄 법칙 모형이 심리학적 현상에 적용되기에 부적절한 것이라는 Cummins 의 주장의 근거는 그런 설명이 우선은 의미 있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에서도 지적된 것인데, Cummins 는 심리학적 현상에 관한 이론이 답해야 하는 물음이 물리적인 인과 현상에 관한 이론이 답해야 하는 물음과는 다른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에 의하면, 과학 이론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성격을 가진 이론群들이 있다. 하나는 어떤 체계의 상태의 변화를 이진 원인의 결과로써 설명하는 변화 이론(transition theory) 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체계의 속성을 설명하는 속성 이론(property theory)이다. 34) 심리학은 속성 이론의 群에 속하는데, 그것에 답해야 하는 질문은 변화 이론이 대답해야 하는 것과 다르다. 즉, 그것은 왜 체계 S가 S₁ 이란 상태에서 S₂ 란 상태로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

註 33) Cummins, R. (1983).

34) 이 경우 물리과학은 전자를 대표하는 이론이 될 것이고 후자의 예로서는 생물학이나 생리학이 될 것이다. 변화 이론에서는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가가 중요하고 속성이론에서는 (변화에 관한 이론이 아니므로) 왜 어떻게 어떤 체계 S가 속성 P를 획득하게 되었느냐가 주요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양자가 대답해야 할 물음이 다름은 분명하다.

변화 이론에서는 다음이 물어진다.

“왜 체계 S가 S₁ 이란 상태에서 S₂ 란 상태로 변화하는가?”

그러나 속성이론에서는 아래 물음이 물어진다.

“체계 S가 속성 P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속성이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무엇이 이 기체로 하여금 열을 갖게 하는가? 무엇이 어떻게 고통을 일으키는가?) 따라서 변화 이론이 제시하는 답의 스타일과 속성 이론이 제시하는 답의 스타일은 다르다는 점이 뚜렷해진다. 심리학이 설명해야 될 대상이 인간의 행위라면 그것의 문제는 속성 이론의 물음의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물리학의 인과법칙을 통한 포섭의 설명 방식을 심리학은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 체계 S가 속성 P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무엇이 이 기체로 하여금 열을 갖게 하는가? 혹은 무엇이 어떻게 고통을 일으키는가? 하는 질문들이 속성이론군에 속한 이론들이 답해야 하는 질문들이다.) 따라서 포섭 이론적 설명방식은 심리학에 있어서 무의미한 설명을 제공할 뿐이다.

심리학적 현상에 관한 설명의 방식으로 그가 강조하고 있는 分析의 方法이란 속성 이론군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된다. 그것은 체계 S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S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이다. 즉 S의 부분들의 속성들과 그것들의 결합의 양태에 의존해서 S가 어떤 속성 P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Cummins는 심리학적 설명에 있어서 포괄 법칙 모형을 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포괄 법칙 모형이 심리학에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님을 인지론적인 시각에서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인지론적 설명 방식

인지론적 심리학이 설명해야 하는 대상은 인간의 인지적 행동이나 인지적 능력에 관한 것이다. 인지론적 심리학이 대답해야 하는 물음은 대강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왜 그는 X라는 행위를 하는가?
- 어떻게 그는 Y라는 행위를 하는가?

그런데 인지론적인 입장에서 설명해야 하는 대상(인간의 인지적 행위나 능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 대부분의 인지적 행위들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사고나 추리의 과정이 그러하고 언어의 구사 행위가 그러하다.
- * 인지적인 행위들은 여러 물리적인 방식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물리적 용어에 의존하는 기술로써는 인지적 행위 하나 하나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다.

이런 성격을 가진 현상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 포괄 법칙적 설명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포괄 법칙적 설명 모델이 첫째로 심리적인 현상의 영역 다시 말하면 인간 행위의 영역에 있어 말이 되는 (make sense)대답 혹은 의미있는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인과적 법칙에 의한 포섭의 전략은 인간 행위의 규칙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 행위의 규칙성은 물리적인 상태 변화의 규칙성과는 무관한 측면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간 행위에 관해서 보다 합당한 이해를 가능케 해 줄 수 있는 설명 방식은 포괄 법칙적 설명 방식 이외의 것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러면 설명 방식은 앞에서 지적된 인간 행위의 특징들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인지론자들은 인지론적 설명방식이 그런 능력을 갖춘 설명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인지론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³⁵⁾

註 35) Haugeland, J. (1978) "The Nature and Plausibility of Cognitivism"

이 논문에서 Haugeland는 인지론적 설명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석봉래

- i) 설명해야 하는 대상(인지적 행동)이 속한 어떤 체계를 상징함.
 - ii) 그 체계의 어떤 능력이나 속성을 통해 설명해야 되는 대상(인지적 행동)을 설명함.
 - iii) 이때 이런 능력이나 속성은 그 체계를 구성하는 부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설명됨.
 - iv) 그 체계 전체나 부분들의 작용은 의미(즉 표상적 내용)를 가진 것으로 특징화됨.
 - v) 인지적 행위는 물리적인 사건이나 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되지 않음.
- iv) **項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지론은 체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특정한 방식의 記述을 하고 그것을 이용한다. 이점은, Dennett의 용어를 빌리자면, 지향적 입장(intentional stance)을 취하는 것이 된다. 즉 어떤 구조를 가진 체계의 행태를 그것이 어떤 믿음,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그런 믿음과 의도가 어떻게 연결되고 처리되었는가를 제시함으로써 그 행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적인 분석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지론에서는 어떤 행태를(인지적 행위를) 단순히 어떤 체계의 구조나 그런 구조에 나타나는 작용(구조적 움직임)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전체 체계의 행태가 나타나도록 의미있는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특징 지움으로써 그 행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인지론적 설명방식의 특징은 그것이 설명하려는 대상의 행태들을 의미있는(표상을 가진) 내적 과정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이, 인지론자들에 있어서, 행위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런 설명방식이 행위의 규칙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가장 잘 드러내 준다. 물리적 방식의 설명이나 기능적 방식의 설명은 행위의 규칙성을 잘 드러내 주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표상이 왜 상징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다. 표상을 상징하고 그것에 의해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은 인지론적 설명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된다.)

둘째로 이런 방식의 설명만이 행위에 관한 물음에 대해 말이 되는 대답, 즉 의미있는 대답이 된다.

3. 認知論的 說明 方式과 心理學

인지론적인 설명방식을 채택하게 되는 심리학은 다른 경험과학들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분과과학이 된다.

→ 그는 인지론의 고유한 설명의 방식을 체계적 설명(systematic explanation)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설명 방식과 형태적 설명(morphological explanation)을 구분하는 것이다. 체계적 설명은 체계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독립적인 상호작용을 전체한다는 점에서 형태적 설명과 구분된다.

우선 심리학은 신경 생리학이나 혹은 보다 기본적인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 행동에 대한 설명이 그런 학문들의 용어를 사용해서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신경생리학적 기술이나, 물리학적 기술로써 인간의 인지적 행위의 규칙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심리학적 설명은 그것이 작용하는 고유한 단계의 영역을 갖는다. 물리학의 법칙으로는 허용되는 존재가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생물학은 물리학에서 도출되지 않는 고유한 법칙을 가지고 그것의 대상을 規制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물리학과 생물학은 다른 단계(level)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물학에는 물리학에서는 도출될 수 없는 그러나 생물학의 영역에는 적용될 수 있는 고유한 規制의原則이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심리학과 신경 생리학 혹은 물리학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심리학은 그런 학문들로부터는 도출 가능하지 않는, 그런 학문들의 법칙들을 넘어서 있는 고유한 행위에 관한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론적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 심리학은, 따라서 이런 학문들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그리고 독립적인 학문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심리학은 고유한 단계의 용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설명방식을 통해 그것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인간의 인지적 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獨立的인 分科科學이 된다.³⁶⁾

4. 認知論的 說明 方式에 대한 反論

이러한 인지론적 설명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우리의 행위에 관한 상식적이고 소박한 설명을 제공하는 심리학과 과학적이고 엄밀한 신경생리학 사이에, 인지론적 단계(정보 처리의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Searle 은 마음이나 심리과정 같은 것을 소화나 생장과 같은 생물학적 기반을 갖는 현상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즉, 우리의 상식적인 심리 상태의 단계와 우리(뇌)의 신경생리학적 단계 사이에는 아무런 중간적인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³⁷⁾

- 3 × 7 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3 을 일곱 번 더해서,

- 3 을 일곱 번 어떻게 더하는가?

그것은 우리 뇌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예에서 보듯, 우리의 많은 인지적 행위들은 그것을 받쳐 주는 인지적, 정보처리적, 표상적 단계를 그 아래 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뇌가 그것을 그렇게 할 뿐이다. 즉 우리의 신경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Searle 의 이런 주장은, 그러나 인지론적 입장이 갖는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과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지적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신경 생리학적 단계에서는 얻

註 36) Pylyshyn, Z. (1987) pp. 111-2.

37) Searle, J. (1984a) pp. 51-2, p. 54.

어질 수 없다. (이점은 Searle도 인정한다.) 또한 인지적(표상적) 단계가 단순히 편의에 의해 설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관한 만족할 만한 (의미 있고 행동의 규칙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설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신경 생리학적 상태나 기능적 상태를 바꾸는 것보다 표상적, 인지적 상태를 바꿈으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행위의 규칙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로서 설정된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세계의 자연현상들이 마치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움직이고 변화해 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이 제시하는 설명과 법칙은 세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인지론자들도 우리의 인지적 행동이 마치 인지적 과정을 거친 결과에 의해 나타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실제로 인지적 과정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인지적 단계는 현상의 어떠한 측면에 대한 참된 기술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D. 컴퓨터

인지론적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인지적 행위가 내적인 믿음 상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것은 다시 정보 처리 과정이나 기호의 조작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게 된다. 이것은(정보처리 과정을 설명에 도입한 점) 과거의 경험론적인 표상이론과 현대의 인지론을 구분지워 주는 점이다. 컴퓨터의 발전에 힘입어 현대의 인지론자들은 우리의 내적표상이 어떻게 외적인 행위를 야기시키게 되는가에 대해 만족스런 설명을 하게 되었다.

1. 인지론과 컴퓨터

마음에 대한 컴퓨터적 접근 방법이 인지론적인 설명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컴퓨터는 우리의 행위를 야기시키는 내적인 심리과정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컴퓨터가 만약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인지론적 입장은 통속 심리학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이란 대상의 이해하기 힘든 작용으로 우리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은 심리학이 과학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COMPUTER의 등장으로 통속 심리학적인 통찰이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마음의 작용을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현대의 인지론적인 입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지론자들은 마음이 일종의 컴퓨터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그들은 심리과정에 관한 모종의 새로운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 생각은 推論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동시에 어떤 (두뇌의) 인과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특정한 추론 규칙을 특정한 생각에 적용시키는 작업은 그 생각의 내용이나 의미와 관련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과 선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반면 인과적인 과정이란 선택이 없는 自動的인 것처럼 보

인다. 이런 상반되는 두개의 측면이 어떻게 하나의 사고과정에 공존할 수 있는가? 의미나 내용이 인과적인 힘을 물리세계에 미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추론은 할 수 없고 단지 떠오르는 생각들의 기계적인 연쇄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두뇌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추론의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³⁸⁾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이것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지론은 실패하고 만다. 인지론은 바로 內的인 과정을 설명에 끌어들이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작동을 참조함으로써 이런 문제는 해결된다. 컴퓨터는 자동화된 形式體系(automated formal system) 즉 자동적으로 定理(theorem)을 산출해 내는 능력을 가진 형식 체계이다. 이때 형식체계란, 어떤 기호를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조작하여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 낼 수 있게하는, 약속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컴퓨터는 이런 기호의 조작을 통하여 우리가 추론이나 사고라고 부를만한 작업을 수행한다.³⁹⁾

컴퓨터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컴퓨터는 그것이 처리하는 기호의 인과적 속성(실지로 컴퓨터 내부에서 기호가 물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는 속성)과 의미론적 속성(그 기호가 나타내하고자 하는 바)을 그것의 구문론적 속성을 통해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⁴⁰⁾

i) 기호의 SYNTAX(구문론적 속성)란 간단히 말해서 기호의 모양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모양은 그 기호의 인과적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마치 열쇠의 모양이 어떤 자물쇠를 그것이 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따라서 기호의 구문론적 속성은 그것의 인과적 역할과 연결될 수 있다.

ii) 형식 논리에 의하면, 기호들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는 그것들 사이의 구문론적 관계로 재생될 수 있다고 한다. 證明理論(proof theory)이 다루는 것이 그런 것이다. 즉 두 기호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의미론적 관계(그 기호들로 표현된 명제가 다른 기호들로 표현된 명제를 함축한다는 식의 관계)는 그중 하나의 기호들이 다른 것에서 연역(derivable)될 수 있다는 구문론적 관계로 재생될 수 있다.

iii)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기호들을 그 구문론적 성질에 착안해서 변화 변형시키는 작용을 하는 기계를 고안할 수 있다. (그 기계가 실지로 하는 작업은 기호의 모양을 바꾸는 것 뿐이다.) 그러나 이 기계는 결론적으로 그 기호들의 의미론적 관계에도 변화를 주게 된다. 이 기계가 바로 컴퓨터인데 이것은 기호의 인과적 역할과 기호가 표현하는 명제의 추론적 역할 사이에 平行 관계를 주게되는 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iv) 여지껏 밝혀진 심리 과정에 관한 가장 합당한 이론은 바로 마음을 이런 COMP-

註 38) Haugeland, J. (1981) pp.1-5. 그리고 Fodor, J. (1985) pp.90-3.

39) Haugeland, J. (1981) pp. 5-15.

40) Fodor, J. (1985) pp.90-3.

UTER의 일종으로, 즉 構文 處理機(syntax driven machine)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이론이다.

이런 주장 때문에 어떤 사람이 P를 믿고 Q를 바라기 때문에 X를 했다고 하는 식의 설명이 상식적인 설명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나 욕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심적인 기호(표상)들로서 심적인 정보처리(즉 우리 마음)에 의해 처리되어(컴퓨터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어떤 의미있는 인과적 결과(인지적 행위)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론자들이 심적 표상을 상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컴퓨터적인 설명 때문이다.)

컴퓨터의 등장은 또한 인간의 지적 능력에 대한 인지론자들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듯 보인다. 컴퓨터의 작동이 실지로 인간의 지적인 활동을 모방하고 있고 인간의 지적인 능력(특별히 계산능력)에 상당 수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 과학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인간의 인지적인 행위에 대한 주장들이 옳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가능하나 일단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물리적인 드러남 방식에 대한 논의의 측면에서, 인지론이 현재까지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 과학의 발달로 인지론자들은 우리의 내적 심리 상태나 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내적인 심리상태나 과정은 생리학적 용어나 물리적 용어가 아니라 컴퓨터적인 정보처리의 용어로 記述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¹⁾ 우선 이런 용어들로 기술되었을 때, 인지적 행동의 규칙성이 가장 잘 포착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으로 그런 단계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인해 심리학이 생리학이나 물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행위에 관한 고유한 원칙들을 갖는 독립적인 학문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의 사용은 통속 심리학적인 설명이 경험적으로 엄밀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 技術과 理解의 문제

인지론에서는 컴퓨터의 모형을 통해 우리 마음의 작용과 행위의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로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숙달된 기술에서 나온 행위나 이해의 행위는 인지적인 행동이라 부를만한 것들이지만(사고, 추리, 판단, 계산, 기억, 추리, 지각 등이 관련되는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컴퓨터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을 거치는 행위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⁴²⁾

i) 技術 : 기술이 발휘되는 순간에는 인지 과정이(정보처리의 과정이) 사라진다. 숙달

註 41) Fodor, J. (1981b) p. 11.

42) Haugeland, J. (1978) pp. 270-7. 여기서 Haugeland는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즉 기분(mood), 기술(skill),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

된 피아노 연주는 연주 도중에 순간 순간 그가 연주해야 할 음표를 생각하고 기억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기술적인 행위는 思考보다 훨씬 빠르고 思考의 過程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ii) 理解: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새로운 의미가 작동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정보처리 체계는, 그러나, 주어진 맥락에 따라 기호의 의미들을 처리하는 체계일 뿐이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맥락에 대해 열려져 있는 것인데, 여러 다양한 맥락에 처하여 기호의 의미들을 적절하고 합당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체계가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는 인지론의 전반적인 입장과 명제태도의 부여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지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의 인지적 행위는 내적인 정보처리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즉,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아울러 이러한 인지론적인 입장은 심리학이 하나의 독립적인 분과 과학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심리학은 인지론적인 입장에서 신경 생리학이나 물리학의 용어가 아닌 컴퓨터적인 정보처리의 용어로 우리의 인지적 행위를 기술하고 그것에서 규칙성을 얻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론적인 입장은 컴퓨터 과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발달의 결과로, 비로소, 우리의 심리적 과정은 내적인 표상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그 경험적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지론적인 입장은 우리의 믿음이나 바램 등 심리상태가 단순한 정보처리 과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우리의 명제 태도들이 갖는 지향적인 측면을 간과해 버리는 일을 하고 만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나 욕구를 타인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내적으로 정보처리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의 인지적 행위 가운데는 내적인 정보처리 과정과는 무관한 것들이 있다. 기술(skill)이나 이해(understanding)에 관련된 행위는 내적인 정보처리 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인지론의 입장은 우리의 마음을 일종의 컴퓨터로 보는 입장이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바로 컴퓨터적인 정보처리의 과정이다. 그러나, 마음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인지적인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즉,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의도하고, 계획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설명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환경의 상태나 자극을 내적으로 표상하고 그 주어진 표상을 기초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활동이 어떤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석봉래

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물음은 의미가 없다. 컴퓨터가 인간과 지적인 형태에 있어서 서로 구별하기 힘들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반응한다고 할 때 우리는 컴퓨터를 인간과 같이 대접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 반대이다. 우리가 컴퓨터를 인간으로 대접하기로 마음 먹을 때, 즉 그에게 나름의 어떤 입장을 부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COMPUTER는 인간처럼 思考하고 어떤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aker, L.D. (1985) "A Farewell to Functionalism" *Philosophical Studies* 48:1-13.
- Barwise, J., and Perry, J. (1983) *Situation and Attitudes*.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Bever, T.G., Carroll, J.M., and Miller, L.C. (eds.) (1984) *Taking Minds: The Study of Language in Cognitive Sc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Blackburn, S. (1986) "Invited Introduction: Finding Psychology." *The Philosophical Quarterly* Vol. 36 No. 143: 111-122.
- Block, N. (ed.) (1980)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1 & 2.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Block, N. (1980 b) 'Introduction: What is Functionalism?' in Block (1980) Vol.1 pp. 171-80.
- Block, N. (1981) "Psychologism and Behaviorism," *Philosophical Review* XC, No. 1:5-43.
- Bogdan, R.J. (1987) "Mind, Content and Information," *Synthese* 70:205-227.
- Bouveresse, J. (1985) "Les machines sont-elles intelligentes?" *La Recherche* No. 170:1126-1127.
- Chisholm, R. (1983) "On the Nature of the Psychological," *Philosophical Studies* 43:155-164.
- Churchland, P. (1979) *Scientific Realism and the Plasticity of Min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hurchland, P. (1984) *Matter and Consciousness*.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Cockburn, D. (1985) "The Mind, The Brain and The Face," *Philosophy* 60:477-493.
- Cuda, T. (1985) "Against Neural Chauvinism," *Philosophical Studies* 48:111-127.
- Cummins, R. (1983) *The Natur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석봉래

- Cussins, A. (1987) "Varieties of Psychologism," *Synthese* 70:123-154.
- Davidson, D. (1970) "Mental Events" in Davidson (1980).
- Davidson, 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 Press.
- Davidson, D. (1982) "Rational Animal." in LePore (1985).
- Demopoulos, W. (1987) "On some fundamental distinctions of computationalism." *Synthese* 70:79-96.
- Dennett, D. (1971) "Intentional System," in Haugeland (ed.) (1981).
- Dennett, D. (1977) : Critical Notice: The Language of Thought by JerrFodor." *Mind* 86:265-280.
- Dretske, F. (1981)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Dreyfus, H. (1979) "Form Micro-Worlds to Knowledge Representation: AI at an Impasse." in Haugeland (1981).
- Flanagan, O. (1984) *The Science of Mind*. Cambridge: The MIP Press. A Bradford Book.
- Fodor, J. (1972) "Three Cheers for Propositional Attitudes." in Fodor (1981).
- Fodor, J. (1980) "Methodological Solipcism considered as a Research Strategy in Cognitive Science." in Fodor (1981).
- Fodor, J. (1981 a) "The Mind-Body Problem." *Scientific American* Vol. 244 No. 1: 124-132.
- Fodor, J. (1981 b) *Representation: Philosophical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Fodor, J. (1985) "Fodor's Guide to Mental Representation: The intelligent Auntie's Vade-Mecum," *Mind* Vol. 94 No. 373:76-100.
- Fogelin, R. (1976) *Wittgenstei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Gallaire, H. (1985) "La Representation des Connaissance," *La Recherche* No. 170:1240-1248.
- Gier, N. (1981) *Wittgenstein and Phenomenology*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 Grossmann, R. (1984) *Phenomenology and Existentialism*.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aack, S. (1978) *Philosophy of Log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anna, P. (1985) "Causal Powers and Cognition." *Mind* Vol. 94 No. 373:53-63.
- Harman, G. (1973) *Thought*.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Haugeland, J. (1978) "The Nature and Plausibility of Cognitivism," in Haugeland (1981).
- Haugeland, J. (ed.) (1981) *Mind Design*.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Haugeland, J. (1981) "Semantic Engines: An Introduction to Mind Design." in Haugeland (1981).
- Hempel, C. (1962) "Explanation in Science and in History." in Nidditch (1968).
- Hofstadter, D., and Dennett, D. (eds.) (1981) *The Mind's I*. New York: Basic Books.
- Hofstadter, D. (1980) *Godel, Escher, Bach: An eternal golden braid*. New York: Basic Books.
- Hofstadter, D. (1981) "Metamagical Themas: A Coffehouse Coversation on the Turing Test to determine if a machine can think." in Hofstadter & Dennett (1981).
- Horgan, T., and Woodward, J. (1985) "Folk Psychology is where to stay." *The Philosophical Review* XCIV. No. 2:197-226.
- Hunter, J. (1986) "The Concept of Mind." *Philosophy* 61:439-451.
- Johnson-Laird, P. (1983) *Mental Model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Kirk, R. (1986) "Sentience, Causation and Some Robots." *Australian Journal of Philosophy* Vol. 63 No. 3:308-321.
- Kirk, R. (1986 b) "Mental Machinery and Godel." *Synthese* 66:437-452.
- LePore, E., and McLaughlin, B. (eds.) (1985) *Action and Events: Perspectives on the Philosophy of Donald Davidson*. London: Basil Blackwell.
- Levine, J. (1987) "The Nature of Psychological Explanation by Robert Cummins: A Critical Notice." *The Philosophical Review* XCVI No. 2:249-274.

석봉래

- Lloyd, D. (1987) "Mental Representation from the Bottom up." *Synthese* 70:23-78.
- Lyons, W. (1985) "On Searle's Solution to the Mind-Body Problem." *Philosophical Studies* 48:291-294.
- Malcolm, N. (1980) "'Functionalism' in Philosophy of Psychology." in th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Vol. LXXX: 211-229. Bristol: The Aristotelian Society.
- Maloney, J. (1987) "The Right Stuff." *Synthese* 70:349-372.
- Manning, R. (1987) "Why Sherlock Holmes can't be replaced by an Expert System." *Philosophical Studies* 51:19-28.
- Margolis, J. (1984) *Philosophy of Psychol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Martin, C., and Pfeifer, K. (1986) "Intentionality and the non-psychological."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XLVI No. 4:531-554.
- Mishkoff, H (1985) *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Dallas Texas: Texas Inc.
- Moody, T. (1986) "Distinguishing Consciousnes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XLVII No. 2: 289-295.
- Nagel, E. (1961) *The Structure of Sci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Nagel, T. (1974) "What it is like to be a Bat?" in Hofstadter & Dennett (1981) pp. 391-40.3.
- Nelson, R. (1984) "Naturalizing Intention." *Synthese* 61:173-203.
- Nidditch, P. (ed.) (1968) *The Philosophy of Science*. London: Oxford Univ. Press.
- O'Hear, A. (1985) *What Philosophy i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Possin, K. (1986) "The case against Stephen Stich's Syntactic Theory of Mind." *Philosophical Studies* 49:405-418.
- Putnam, H. (1975)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utnam, H. (1978) *Meaning and Moral Scienc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utnam, H. (1983) *Realism and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ylyshyn, Z. (1985) *Comput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Pylyshyn, Z. (1987) "What's in a Mind?" *Synthese* 70:97-122.
- Rey, G. (1986) "What's really going on in Searle's 'Chinese Room'". *Philosophical Studies* 50:169-185.
- Rich, E. (1983) *Artificial Intelligence*. New York: McGraw Hill.
- Richardson, R. (1982) "Turing Tests for Intelligence: Ned Block's Defense of Psychologism." *Philosophical Studies* 41:421-426.
- Rorty, R. (1982) "Contemporary Philosophy of Mind." *Synthese* 53:323-348.
- Rosenthal, D. (1986) "The Concepts of Consciousness." *Philosophical Studies* 49:329-329.
- Ryle, G. (1949) *The Concept of Mind*. New York: Barnes & Noble Inc.
- Sanford, D. (1986) "Critical Notices: From Folk Psychology to Cognitive Scie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XVII No. 1:149-154.
- Sayre, K. (1987) "Cognitive Science and the Problems of Semantic Content." *Synthese* 70:247-269.
- Searle, J. (1980) "Minds, Brains and Programs." in Haugeland (ed.) (1981).
- Searle, J. (1983) *Intention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earle, J. (1984 a) *Minds, Brains and Scienc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Searle, J. (1984 b) "intentionality and its place in Nature." *Synthese* 61:3-16.
- Schaffer, J. (1968) *Philosophy of Min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Sperber, D., and Deirdre, W.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London: Basil Blackwell.
- Stich, S. (1983) *From Folk Psychology to Cognitive Science: The Case against Belief*. Cambridge: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Turing, A. (1950)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in Hofstadter & Dennett (eds.) (1981) pp. 53-68.
- Yu, P., and Fuller, G. (1986) "A Critique of Dennett." *Synthese* 66:453-476.

석봉래

Vellino, A. (1986) "Book Review. J. Haugel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very Idea.*" *Artificial Intelligence* 29:349-353.